

다우코닝, 국내 태양광 기술센터 건설

진천 소재 R&D센터 2010년 하반기 완공 ... 생산라인 추가투자 기대

글로벌 실리콘(Silicone) 생산기업 다우코닝(Dow-Corning)이 충청북도 진천에 태양광 R&D센터를 건설해 주목된다.

한국다우코닝 조달호 대표이사는 정우택 충북지사와 3월30일 도청에서 <다우코닝 태양광 솔루션 응용기술 센터>의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.

다우코닝은 2010년까지 진천 광혜원산업단지에 위치한 진천공장에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2010년 초부터 시험 제조 장비를 가동할 계획이다.

다우코닝이 본사가 있는 미국 외 지역에 R&D 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충청북도 관계자는 “생산라인 등 추가 투자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현대중공업 등의 태양광 모듈, 셀 생산에 이어 연구센터까지 갖추게 돼 아시아의 솔라밸리 구축사업이 힘을 얻게 됐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30>